



문서번호 : 18-06-과거-01

수 신 : 각 언론사
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

제 목 : [보도자료]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, 과거사 원고·피해자, 「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」 긴급 기자회견

전송일자 : 2018. 6. 8.(금)

전송매수 : 총 2매

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,

과거사 원고·피해자, 「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」 긴급 기자회견

2018. 6. 11.(월) 오전 11시. 대법원 등문 앞.

1.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. 그 피해의 선두에 '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'이 있습니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 '**과거 왜곡의 광정(匡正)**'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'**제2의 국가폭력**'을 자행하였습니다.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,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'**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**'고 자평하면서,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,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.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,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.
3.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, '원고'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,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.

4. 지난 5일,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 번 사건은 '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되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.

5.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.

2018. 6. 8.

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
과거사청산위원회[직인 생략]

* 기자회견 웹자보



과거사 원고 · 피해자,
「양승태 전 대법원장」 고발 긴급 기자회견

2018. 6. 11.(월) 오전 11시 / 대법원 동문 앞
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단체

여는 말씀

피해자 증언 민청학련 / 긴급조치사람들 / 조작사건(아람회)
노동사건(원풍동지회) / 한국전쟁 유족회 / 진실의힘

고발요지 발표 | 기자회견문 낭독 | 고발장 접수